

200자 안내

한번 고객을 평생의 고객으로 만드는 법

칼 소웰 외 지음 / 정성호 옮김

87년 「타임」지 선정 최우수 딜러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걸출한 카 딜러, 현재 「INC」지의 마케팅 에디터인 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객관리의 다년간의 경험을 보여준다. “고객에게 무엇을 의뢰하면 대답은 항상, 예스, 그것뿐이면 된다”를 비롯한 고객서비스 10계명을 책머리에 싣고 있으며, 고객과 종업원의 심리학과 이미지 관리,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 가득 실려 있다.

장락 / A5신 / 280면 / 8000원

내사랑 엘튼 dog

스테판 루스 지음 / 김한운 그림

주로 소년 소녀들의 아름다운 얘기를 써온 작가의 작품. 동생이 태어나자 기르던 개를 남에게 준 주인공 버니는 같은 학년 아이들의 애완동물기르기 모임에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과도 떨어진다. 그러다가 떠돌이 개 엘튼을 만난 버니는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다시 개를 기르며 활기를 찾는다는 게 이 작품의 줄거리.

대림기획 / A5신 / 146면 / 4000원

꿈치

톨스토이 지음 / 이향희 옮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우화 40편을 묶은 이색적인 책. 4.6판 하드커버에 깔끔한 편집이 돋보이는 이 책에는, 짙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세계적 작가의 “마음을 울려주는 순수하고 높은 이상, 소박한 표현 속에 넘치는 깊은 지혜”(로망 폴랑)가 담긴 우화가 가득 들어 있다.

서연 / A5신 / 148면 / 4500원

천국은 여인의 가슴에 있다

나구모 사토루 지음 / 정성호 옮김

동경대 교수인 저자가, 폐병으로 55세의 생을 마감한 「이Q 정전」의 작가 노신과 함께 했던 5명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만 모아 엮은 책.

38 출판저널

중국 근대문학의 거장으로 국민적 추앙을 받고 있는 노신과 봉건제도의 희생자인 본처 주안, 내연의 처로 제자였던 허광평, 신선하게 노신에게 다가섰던 여대생 허선소, 형제의 의를 끊게 했던 동생의 아내 노부코, 그리고 마음의 교류를 나누었던 하츠에와의 관계가 모두 드러난다.

우석 / A5신 / 226면 / 4500원

지혜의 책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김무정 옮김

인도태생의 명상가인 저자가 아티샤의 ‘명상요결’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아티샤는 티벳에 불교를 전파한 인도의 고승으로 중국의 보리 달마대사에 견주는 티벳의 종교가. 그가 남긴 모두 7장 61개의 구절로 구성된 ‘수심요결’을 라즈니쉬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과 지혜로 현대인들에게 알맞게 강론했다. 이 책은 라즈니쉬의 강연녹음을 옮긴 것이다.

여강 / A5신 / 328면 / 5000원

現代日本資本主義論

바바 히로지 엮음 / 정도영 옮김

일본 경제학자 5명이 공동집필하고 세계경제론의 권위자인 동경대 바바 히로지교수가 엮은 책으로 일본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엿보인다. ‘會社主義의 신화’가 부제로 붙은 이 책에서 저자들은 현대자본주의를 ‘과잉부유화론’으로 파악하고, 자원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암울함을 역설한다. 또한 미국의 자본주의와 성향을 달리 하는 일본자본주의의 특질을 ‘회시주의’라고 명명한다.

의암출판 / A5신 / 358면 / 7000원

다크 타워 1

스티븐 킹 지음 / 권국성 옮김

영화 「미저리」의 원작자로 알려진 작가의 전3부 6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장편소설. 음울하고 악마적인 분위기가 깔린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는, 1부 ‘총잡이’를 집필하는 데 12년의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이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는 현대문명 도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막과 산악만이 남은 미래를 무대로 총잡이 롤랜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를 추격하는데…….

앞새 / A5신 / 274면 / 4500원

기쁨의 도시

도미니크 라빠에르 지음 / 정진화 옮김

인도의 가난과 혼돈, 그리고 위대한 인도정신을 담고 있는 소설. 작가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작품을 발표해 명성을 얻은 바 있으며, 이 작품 역시 영화화될 예정. 2년여

동안의 취재를 통해 실재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작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고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설득력 있게 전해준다. 2백회가 넘는 인터뷰와 방대한 자료로 짜여진 작품이어서 사실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요한사 / A5신 / 416면 / 5000원

약속의 땅 (전5권)

고미카와 준페이 지음 / 유창위 옮김

2차대전 당시 만주와 소련국경 경비부대에 근무하다 소련군에 의해 부대가 전멸당했음에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인간의 조건」의 번역본. 군국주의의 결과로 빚어진 전장의 참혹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는 작가는, 인간 스스로 만든 지옥인 전쟁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거듭 강조한다.

글사랑 / A5신 / 340면 / 5000원

농업환경조절공학

矢吹萬壽 외 지음 / 이석건 옮김

이 책은 작물재배의 환경조절과 관련된 분야의 일본 연구가 9명이 일본농업기술 가운데 가장 발전했다는 평을 듣는 농업환경조절공학에 관해 쓴 글을 모은 것. 인간의 목적에 맞게 생물의 유전적 형질을 발휘시켜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이 학문이 중요시되고 있어 더욱 출판의 의미가 각별한데, 특히 자연 에너지의 이용 등을 기술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자나 실무자들에게 유용하게 읽힐 만한 책.

교보문고 / A5신 / 344면 / 7500원

나의 길 나의 삶 2

출판부 엮음

「한국의 대표지성 60인의 자전예세이 나의 길 나의 삶」에 이어 나온 이 책은 첫째권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등장시켜 더욱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집념의 외길 걸어온 명사 50인의 자전예세이’가 부제인 이 책에는, 프로야구 강병철감독을 비롯해 성우 배현성씨, 연극배우 윤석화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감동깊게 그려져 있다.

동아일보사 / A5신 / 348면 / 5000원

또 하나의 시작

라빌 스펜서 지음 / 공경희 옮김

자기성취를 위해 홀로서기를 선언한 여자가 성장한 딸의 결혼과정을 지켜보며 인생과 사랑에 새롭게 눈뜨는 과정을 그린 작품. 치밀한 인물묘사와 상황전개가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작가는, 여자의 자기성취 욕망과 남자의 외도로 인한 파경, 그리고 그런 부부의 갈등구조

속에서 심화되는 자녀들의 불안심리 등의 아픔을 딛고 성숙돼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펼쳐 보인다.

시공사 / A5신 / 492면 / 6500원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영조 지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거머쥔 황영조선수의 성공담을 실은 책. 일장기 말소사건을 일으켰던 손기정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이후 56년만에 민족의 한을 풀어준 황영조선수의 이 수기는, 운동선수의 끈질긴 승부근성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의 지칠 줄 모르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더욱 읽을 만하다. 우승이후의 원색화보도 곁들인 이 책의 부록은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의 구간별 기록과 세계최고기록표.

일빛 / A5신 / 200면 / 4500원

孟子 이 난세를 어찌하리

이시현 엮음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의 번역본으로 7편 14권의 원서의 내용을 정치 사상 교육 경제의 4편으로 분류해 재편집한 것이 특징적. 단순한 원문의 字句해석을 탈피해 평이하면서도 자세한 해설을 보탠 점 또한 기존의 책들과 다른데,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맹자」를 쉽게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하나미디어 / A5신 / 340면 / 5000원

걸어가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걸어간다

김재순 지음

국회의장을 지낸 저자가 잡지 「샘터」의 뒷표지와 「隨題寸感」란에 게재했던 사색의 단상과 에세이들을 모아 엮은 단상집. 이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저자는 “걸어가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의 인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오랜 정계생활과 출판인으로서의 체험을 통해 숙성된 저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샘터 / A5신 / 256면 / 3500원

시장과 마피아

안택원 지음

오늘의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속과 겉을 평이한 서술로 그린 책. 이데올로기나 학문적 접근이 아닌 러시아 어느 곳에서나 맞닥드릴 수 있는 시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을 전해 주면서도, 그런 모습 속에서 저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사회상을 전한다. ‘8월 뿌치 秘史’ ‘제국의 몰락’ ‘시장과 마피아’

‘레닌묘와 햄버거’ 등이 주요목차.
장원 / A5신 / 325면 / 5000원

웃음과 여유를 주는 지혜들

伏琛 지음 / 임창연 옮김

중국의 희곡가 李漁가 명나라의 문장가 馮夢龍의 「古今譚概」를 손질해 낸 「古今笑史」를 원용한 것으로, 봉건사회의 고관대작과 민초들의 삶이 회화화돼 있어, 희노애락에서 비롯되는 온갖 웃음이 배어 있다. 史書에 나오는 해학적인 글들을 모은 것 중에서 가려 뽑은 1백편의 풍자적 글들은 고급의 터울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웃음을 전해준다. ‘고전속의 지혜’ 시리즈의 둘째권.

사계절 / A5신 / 232면 / 4500원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 지음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로 현재도 작품의 마무리를 다듬고 있는 작가의 출세작으로 손꼽히는 장편소설. 「토지」의 제1부처럼 불륜을 의심받은 여인이 자결하고 의심의 기미를 준 남자가 피살된 주인공 집안내력을 말하면서 이 소설의 막이 오른다. 그 비극의 씨앗이 자결한 여인의 아들인 김씨(약국)의 딸들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이 소설의 열쇠.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김형국교수의 작가론 ‘향토에서 세계성을 찾는 작가 박경리’가 권말에 실렸다.

나남 / A5신 / 398면 / 5500원

키스의 전주곡

크레이그 루카스 지음 / 류시철 옮김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진실한

사랑의 불멸성을 우화적인 수법으로 그린 것. 출판사에 근무하는 피터는 자신과의 공통점이 많은 귀여운 리타를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장에 찾아온 줄리우스란 노인과 키스를 한 리타의 영혼이 그와 뒤바뀌는 불행을 만나게 된다. 영화로 제작되기 전에 희곡으로 씌어져 무대에도 올려졌던 작품.

책중의책 / A5신 / 274면 / 4500원

연애론

하니스 스무 지음 / 정순희 옮김

일본의 현역 영화감독이자 저술가인 저자의 ‘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배기는가’를 부제로 단 수상집. 사랑으로 상처받고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단 한순간도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간에게 사랑은 과연 무엇이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일러준다.

인화 / A5신 / 268면 / 4800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존 드라이버 지음 / 차길선 옮김

예수의 가르침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통찰로 씌어진 책. 성경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는 이 책은, 마태복음 5~7장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특정한 논제들을 기술한 것이다.

무실 / A5신 / 236면 / 4500원

계간지

문학과 사회(93년 봄)

[특집] 문학사를 점검한다. ▲소설사·언어사·소설 언어사(한재영) ▲문학사의 ‘지향’과 ‘실현’ (김철) ▲80년대 국문학 연구의 현황과 90년대의 새로운 모색(하정일) ▲더 느린, 더 빠른, 문학(김진석)

[오늘의 한국문학] ▲총평: 문학공간 1993년 봄 ▲이창동의 총체적 시각과 삶의 진실(오성근) ▲‘텍스트화한 역사’ 혹은 ‘떠 있는 텍스트 만들기’와 그 의미 연쇄망(최성실) ▲소통 불능의 시, 그 절망의 어법(박혜경)

[비평·논문] 시민사회론을 위하여(이기홍) [시] 황동규/정현중/황지우/김정란/나희덕/김중식/강윤후

[소설] 최수철/박인홍/이청해 [테마서평] ▲한국문학: 대립적 총체성의 학문적 원리와 계승 방향(김현성) ▲사회사와 역사사회학(김응중)

문학과지성사 / A5신 / 392면 / 5000원

창작과 비평(93년 봄)

[신춘대담] 미래를 여는 우리의 시각을 찾아 (고은/백낙청)

[평론] ▲김남주 시에 대한 몇가지 생각(김사인) ▲「황혼」의 소망과 리얼리즘(이선영) ▲문화의 몰락과 비평의 위기(도정일)

[소설] 송기원/신경숙 [시] 신경림/조태일/김지하/정희성/하종오/박남철/고형렬/서홍관/천승세/김기택/김영무 [문화서평]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김영

혜)

[특집] 세계 속의 동아시아, 새로운 연대의 모색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최원식)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한국 민족주의(이삼성) ▲일본의 대외 전략 구도와 아시아정책(이종원)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疏遠과 통합(고병익) ▲아시아·태평양권이러는 개념(아리프 달릭)

[논문] ▲‘지역감정’과 한국의 민주주의(조희연) ▲민족적 통일과 사회적 분열(홍거 하이데) ▲현실사회주의의 위기와 사회주의적 발전전망(유팔무)

[서평] ▲참다운 노래를 위하여(이시영) ▲동화의 사중주(김태현) ▲어린 연구와 실증의 정신(심재기) ▲1945년 이전의 김일성(조동걸)

[짧은 서평] ▲개인의 성실, 역사의 진보(박영서) ▲자수성가한 한 젊은 문인의 ‘자주성’과 ‘관념성’(임규찬) ▲여성사 연구의 과거·현재·미래(이준식)

창작과비평사 / A5신 / 440면 / 6000원



제30회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CHILDREN'S BOOK FAIR IN BOLOGNA-

1993

APRILE 15-18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이태리의 도서출판 관련유수업체 및 외국업체까지 무려 1,200여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규모 - 30년 전통의 '93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 도서출판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도서들이 전시되어 국제화 시대의 최첨단 문화를 접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
- 국내 아동도서출판 문화의 향상과 제작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전시기간: 1993년 4월 15일(목)~4월 18일(일)
- ◆ 전시장소: ITALY FIERA BOLOGNA
- ◆ 전시품목: 아동·청소년 서적류, 교과서, 비디오·카세트 프로그램, 교육용 소프트웨어, 일러스트류 (전문인센타 운영)
- ◆ 참관경비: 1,430,000원
- ◆ 참관일정: 1993년 4월 14일(수)~4월 20일(화)/6박7일
 - 제1일: 서울 출발, 로마 도착
 - 제2일: 전일 바티칸 시국 등 로마 시내관광
 - 제3일: 볼로냐로 이동, 전일 전시회 참관
 - 제4일: 전일 전시회 참관
 - 제5일: 오전 전시회 참관후 로마로 귀환
 - 제6일: 로마 출발
 - 제7일: 서울 도착후 해산
- ※ 여행조건: 왕복 항공료, 호텔(2인1실), 식사비,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공항세 등

☎ 523-0900 (FAX: 588-7658)
서울·서초구 방배동 445-1